

RISTecBiz

인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친환경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과를 넘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차별화된 생산능력을
통해 자원순환 선도기업으로서 입지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리스텍비즈는 SIMPAC그룹의 일원으로 계열사간 협력과 소통으로
통합의 시너지를 발휘하여 SIMPAC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더 큰 도약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녹색성장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 리스텍비즈의 도전과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본사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6길 46 TEL 061-792-8812
광양공장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2148-97 TEL 061-797-2011~2

 리스텍비즈

SIMPAC STORY

2021 | VOL. 52



Growth × Synergy

계열사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다



2021 | VOL. 52

SIMPAC STORY

Growth × Synergy

계열사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다

FOCUS ON



04

SUCCESS STORY

리스텍비즈의
변화를 통한 성장 스토리와
경쟁력을 분석

INSIDE SIMPAC



16

현장속으로

SIMPAC 메탈BU 당진공장의
현장을 찾아 도전과
성장의 스토리를 듣다

OUR STORY



32

슬기로운 직장생활

SIMPAC인들을 위한
업무 효율화와 긍정적인
조직생활을 위한 큐레이션

36

심팩 Talk Talk

협력과 시너지에 대한
조직문화 설문조사

CONTENTS

통권 52호
 발행인 최진식
 발행일 2021년 10월 25일
 발행처 SIMPAC홀딩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13층
 기획 및 디자인 큐더스다임 02-6011-0200

사보 담당자
 ㈜SIMPAC홀딩스
 이도영 사원 02-3780-4923 dylee@simpac.com

㈜SIMPAC 프레스BU
 권순영 매니저 032-510-0023 sykwon@simpac.com
 남윤기 매니저 032-510-0024 yknam@simpac.com
 김효리 매니저 032-510-0040 hyrkim@simpac.com

㈜SIMPAC 메탈BU
 선광규 과장 054-271-8724 kgsun@simpac.com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
 최한나 사원 032-590-8905 hnchoi@simpac.com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정기환 팀장 054-271-8930 ghjung@simpac.com
 고수희 사원 054-271-8932 hjko@simpac.com

㈜리스텍비즈
 김영철 팀장 061-797-2012 yckim@simpac.com
 전화영 사원 061-797-2014 hyjeon@simpac.com

㈜SIMPAC홀딩스 ENG BU
 이종서 팀장 032-590-2024 jslee@simpac.com
 서상철 과장 032-590-2030 scseo@simpac.com



10

제품탐구

성장을 이끌어 온
주요 핵심 제품과 성장 동력을
심층 소개

12

10문 10답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주제로 진행한
현장감있는 인터뷰

14

SIMPAC News



22

심팩 인사이드

SIMPAC 프레스BU
동기화 프레스 제품에
대해 들어보다



26

공감토크

SIMPAC 프레스BU
R&D본부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노하우와 애환을 공유



42

SIMPAC_STARGRAM

'동반자'를 주제로
SIMPAC인들의
일상을 공유

44

우리들의 이야기

FOCUS ON

ÈÈ DÖDÖÈÈÄÈÈ ÈÈ
× ÈÈËÈÇFDÛ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미래로
전진하다

기업의 미래는 기술력과 사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술력은 사람에 의해 완성되고 사람은 기업이 가진 조직문화에 의해 만들어진다. 리스텍비즈의 성장 비결은 넘어야 할 벽이 높다고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던 직원들과 그들이 이뤄낸 차별화된 기술력에 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 다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온 값진 시간은 성장곡선을 구가하고 있는 리스텍비즈의 현재가 말해준다. 리스텍비즈는 끊임없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나무가 클수록 뿌리가 깊듯이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 까닭이다.



(좌로부터) 리스텍비즈 생산팀 김관빈 팀장, 영업팀 현지만 팀장, 생산지원팀 장진율 과장



리스텍비즈 생산팀

자원과 환경을 지키는 친환경 기업

리스텍비즈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이 2008년 1월 설립했으며, 2018년 10월 SIMPAC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후 산업 다방면으로의 진출과 기술력 극대화를 이뤄내며 지속성장을 해왔다.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하나로 응집하는 팀워크를 형성하고, 팀 간의 조화를 이루면서 시너지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철강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에는 합금 또는 도금에 쓰이는 다량의 아연이 함유되어 있다. 하지만 납과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지정 폐기물로 분류돼 전량 매립되는 실정이었다. 매립을 위한 비용 발생은 물론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까지 생각한다면 재활용 방안이 시급했던 상황이었다.

버려지는 산업 폐기물을 재활용하다

리스텍비즈는 철을 회수하고 남은 부산물에서 아연을 추출한다. 리스텍비즈가 차별화되는 이유는 공정 과정에 있다. 일반적으로 산화아연은 건식공정을 통해 생산된다. 건식공정은 열을 이용해 원료를 수분이 없는 건조 환경에서 생산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산화아연에 함유된 중금속을 제거하기 힘들다.

이에 반해 리스텍비즈는 원료를 녹인 물에 각종 약품을 첨가해 빠고 싶은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는 습식공정으로 생산한다. 습식공정은 중금속 제거 수준을 높여 보다 안전한 산화아연을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니즈에 따라 다양한 산화아연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 습식공법으로 산화아연을 생산하는 기업은 리스텍비즈가 유일하다.

산화아연은 고무(타이어, 고무), 세라믹, 화학(PVC안정제), 페인트(도료), 동물사료 등 우리 실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쓰이는 산업 소재의 원료로 활용된다. 리스텍비즈의 산화아연은 화장품 원료로도 납품될 만큼 품질 면에서 뛰어난 인정을 받았다.

2008

· 리스텍비즈 설립

2009~
2010

· ZnO 회수 P/P 규모 연구개발 (RIST)

2010

·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환경청),
단미사료제조업 등록 (광양시청),
· ZnO 회수 플랜트 준공
(광양제철소 자원화 단지 내)

2008 | 지속성장 기반 구축 |



성공 포인트: 멈출 줄 모르는 새로운 시도와 끊임없는 도전

현재의 리스텍비즈가 있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있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나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은 도전의 연속 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기에 설비 하나하나가 전부 낯설었고, 그 누구도 경험해본 적이 없기에 공정 하나하나가 새로운 수밖에 없었다. 그 모든 과정이 도전과 성장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수많은 경험은 다양성을 가져왔다.

“분말 형태의 산화아연이 아닌 액체 형태의 염화아연, 마이크로 단위의 입자 크기를 지닌 산화아연을 나노 단위로 곱게 간 나노 산화아연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며 리스텍비즈의 제품군을 넓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정이 바뀌고, 공정이 바뀌면서 설비 교체와 신규 라인이 들어서는 등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리스텍비즈의 발전을 도모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대대적인 설비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생산한 고순도 산화아연을 분말 형태로 만들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건조로의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고 생산된 제품을 포대에 담고 로봇 팔로 적재하는 자동화 설비가 추가되었다. 설비 투자는 돌발적인 정비 상황과 일상 정비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생산성은 높아졌다.

아울러 리스텍비즈는 제품 내 중금속 함량을 1%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중금속 수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제 방법의 개선점과 해결책을 찾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 아연 분말 투입 방식을 바꾸었고, 이를 통해 아연 사용량을 약 100kg에서 약 30kg까지 줄였다. 품질 향상은 공격적 성장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성공 포인트: 지치지 않고 늘 열정적으로! 점음과 패기로 뭉치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단순히 좋은 제품을 넘어 고객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시스템을 갖추고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직원들의 긍정적 마인드와 하나가 돼 뚝뚝 뭉칠 수 있는 자세이다. ‘일은 사람이 한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일이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

리스텍비즈는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낮고 동료 간, 상하 간의 간격도 좁은 편이다. 이는 비단 연령차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까지를 포함한다.

“리스텍비즈에는 각자의 분야에서 오래 일한 베테랑도 많지만 근속 연수가 짧은 직원도 꽤 많습니다. 평균 나이가 30세가 채 안될 만큼 젊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것이 자랑입니다. 선배와 후배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가르쳐주고 배우려는 자세가 갖춰져 있다는 점은 리스텍비즈의 장점입니다. 이러한 조직문화 덕분에 앞으로 수많은 인재가 리스텍비즈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리스텍비즈의 또 다른 강점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조직문화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수많은 과제를 극복하며 저마다 성취를 이루었고 시련을 돌파하며 전문성도 갖춰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끈끈한 동료애와 원활한 소통은 노력을 결실로, 수고를 보람으로 꽃피게 만든다.

2011

| 수익 창출 및 미래 핵심역량 강화 |



2011

• ZnO사업 광양공장 Clean 사업장 인증

2013

•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ISO 9001/14001)



2015

• ZnO사업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안전공단)

2016

• 국무총리상 수상 (자원순환 우수기업)

2017

• ZnO사업 무재해 4배수 달성 (안전공단)
• 탄산아연 공급 계약체결 (일본, 이노우에공업)
• 화장품용 원료 유상 공급 개시 (1톤, COSMAX)



친환경 기업이라는 자부심, 우리가 최고라는 마인드로 승승장구!

리스텍비즈 직원들은 “리스텍비즈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SIMPAC 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높아졌고, 제품의 다변화를 이루었으며,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목표에 임하는 직원들의 자세는 더욱 가열차게 변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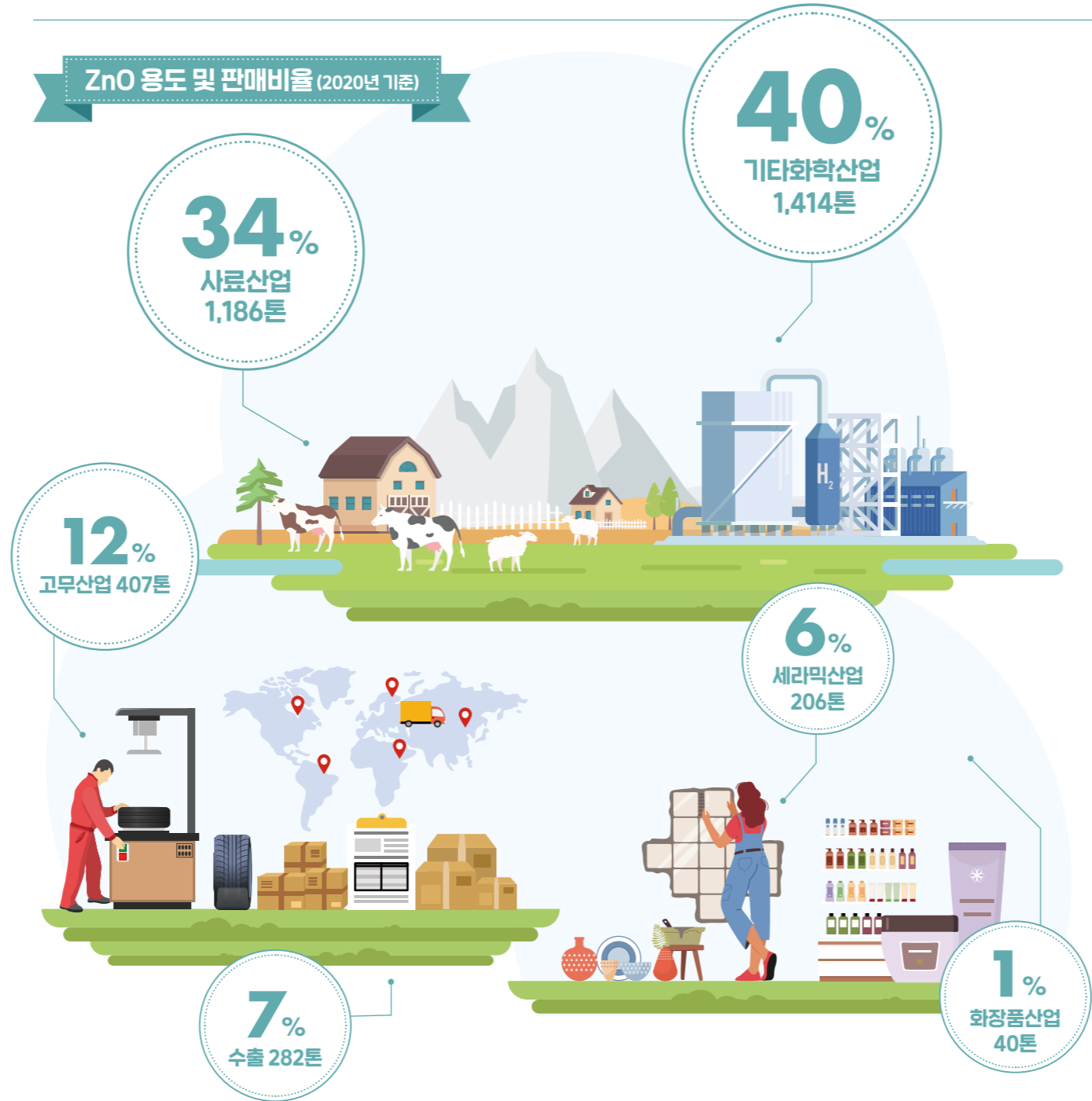
하지만 리스텍비즈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큰 발전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품질 개선을 위해 다방면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등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품질과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는 각오다. 다양한 공급처를 확보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66

리스텍비즈의 모든 직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라톤 선수나 사이클 선수가 지쳐 포기하지 않고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게 조력하는 페이스메이커 덕분에 선수들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리스텍비즈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힘을 북돋우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직원들이 있기에 리스텍비즈의 미래는 더욱 밝다고 생각합니다.

99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도전

현재 리스텍비즈에서 생산하는 산화아연은 타이어 및 고무 산업 시장의 78%를 점유하고 있다. 앞으로 품질과 생산량을 높여 나간다면 공급량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및 국제 아연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큰 폭의 영업 실적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아울러 리스텍비즈의 친환경 기술은 더스트를 리사이클링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낭비되는 자원을 막는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산업이다. 이에 대해 리스텍비즈 직원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이러한 자부심과 함께 목표가 있고, 실력과 열정이 있으니 이들의 미래는 승승장구일 것이다. 앞으로 더욱 비상할 리스텍비즈의 내일을 기대해본다.



리스텍비즈 생산관리팀 김관빈 팀장

“2011년 상용화를 목표로 2010년부터 테스트와 시운전을 하며 준비했지만 설비에 나타나는 문제는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마다 모든 설비를 하나하나 뜯어고치면서 생산 안정화와 생산량 증대, 품질 개선과 품질 다양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리스텍비즈 영업팀 현지만 팀장

“리스텍비즈에는 평균 나이가 30세가 채 안될 만큼 젊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것이 자랑입니다. 이러한 조직문화 덕분에 앞으로 수많은 인재가 리스텍비즈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리스텍비즈 생산지원팀 장진울 과장

“리스텍비즈의 친환경 기술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낭비되는 자원을 막는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있는 산업입니다. 이런 친환경기업에서 환경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습니다.”

2018

| 제 2의 도약, SIMPAC그룹 편입 |



2018

- KOSHA 18001 인증 (안전공단)
- SIMPAC그룹 계열사로 편입

2019

- 산학협력 MOU체결 (한국폴리텍대학)

2020

| 지속적인 성장과 도전 |

2020

- 상호협력지원을 위한 MOU체결 (코스맥스)
- ZnCl2 (염화아연) 판매 개시



국내유일의 고순도 산화아연 제조 기업, 리스텍비즈

리스텍비즈의 주요 제품은 포스코 철강공정 중 발생하는 2차 Dust에 함유된 아연(Zn)을 회수하여 고순도 산화아연(ZnO)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산소와 아연의 화합물인 산화아연은 가벼운 백색분말로 아연화라 불리며, 국내외 고무(타이어, 고무), 세라믹, 화학(PVC 안정제), 페인트(도료), 동물사료 등의 제조사에게 원료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타이어 및 고무산업이 산화아연 시장의 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ZnO 산화아연 (zinc oxide)

- ✔ 전분자량 : 81.38g/mol
- ✔ 산소와 아연의 화합물로 가벼운 백색 분말
- ✔ 고무, 페인트, 세라믹, 유리, 사료,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의 기초원료로 사용

리스텍비즈 영업팀 현지만 과장

리스텍비즈 생산지원팀 장진율 과장



SC-1 Grade



- 97% 이상의 아연순도를 가진 제품
- 고무·타이어, 사료, 화학공업용으로 판매



SC-2 Grade



- 90% 아연순도를 가진 제품
- 동물용 사료 제조용으로 판매



리스텍비즈 생산팀 김관빈 팀장

SC-3 Grade

- 65~75% 아연순도를 가진 제품
- 2020년, 1,000톤 생산
- 2021년, 2,000톤 생산 및 정기적인 납품

염화아연(ZnCl2)

인산염과 병용하여 부식 방지 피막 형성 및 부식억제 효과로 수처리 설비의 부식 방지제로 사용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 갑시다!

리스텍비즈의 성장과 발전은 몇 사람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리스텍비즈 전 직원들의 땀과 열정이 하나가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리스텍비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청사진에 대해 이야기해줄 생산팀 김관빈 팀장, 영업팀 현지만 팀장, 생산지원팀 장진울 과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 리스텍비즈

Q. 각자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소개를 해달라!

장진울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 분야의 총체적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환경법규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이 주요 업무입니다.

김관빈
품질, 정비, 전기, 소방 등 생산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지만
생산팀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출고부터 고객 인도까지 전반적인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협업을 통해 창출하신 성과 혹은 현재 협업 중인 프로젝트가 있나?

현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2013년에 ISO 인증을 받은 일입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 각 팀들이 서로 힘을 모았고 그 과정에서 각각의 팀이 무슨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김관빈
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생산팀, 영업팀, 생산지원팀이 무상으로 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으고 힘을 합친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생산지원팀에서는 환경적인 부분의 법규를 알아봐주었고 영업팀에서는 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주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치면서 성과를 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뭔가 해냈다'는 보람이 두 배로 컸습니다.

Q. 협업을 하면 이런 점이 좋다!

현지만
협업은 나에게 없던 정보와 지식을 채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내 분야에서만 일한다면 절대 몰랐을 지식과 정보가 직원들 간의 교류를 통해 확산되고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협업은 개인뿐 아니라 조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진울
끈끈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다는 점 아닐까요. 혼자 일을 하면 개인의 발전은 있을지 몰라도 동료들과의 진정한 케미를 느껴볼 수는 없잖아요!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돈독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사회생활을 하는 또 다른 즐거움일 거라 생각합니다.

김관빈
일 년, 일 년 경험이 쌓이다 보니 함께 방법과 방안을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습니다.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닌 여러 동료들이 아이디어가 훨씬 큰 시너지를 발휘하고 고민의 결과물 또한 더욱 좋습니다. 이게 바로 협업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나와 조직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장진울
사회생활을 오래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으면 자기 일에 어느 정도 아집이나 고집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집이나 고집이 때로는 성장과 발전에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아집과 고집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 Send

< 리스텍비즈

김관빈
업무를 할 때 직원들이 불편해하는 점이 있으면 즉시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성과도 나오는 법이니까요.

현지만
저는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후배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다가서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사소한 정보나 지식까지도 최대한 공유하려고 합니다.

Q. 내가 자랑하고 싶은 나의 최대 성과는?

김관빈
생산량을 최대로 끌어올린 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대 생산량은 직원들의 역량, 기술력, 설비와 안전 등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이뤄낼 수 있습니다.

장진울
친환경 기업에서 환경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 자체가 자랑스럽습니다.

현지만
모든 일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 저의 자랑이자 자부심입니다.

Q. 일을 할 때 가장 보람되고 즐거운 순간은 언제인가?

장진울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느끼는 순간인 것 같아요.

김관빈
새로운 시도나 도전에 성공했을 때죠.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좋은 결실을 맺었으니 그것보다 더 보람되고 기쁜 순간이 있을까요.

Q. 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현지만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는 누구 한명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동료애도 싹트고 일도 재미있어지죠.

김관빈
각자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각자의 역할에 책임을 다할 때 협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혹여 실패를 해도 후회가 남지 않아요.

장진울
저마다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일을 하다보면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때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갖춰져 있으면 각기 다른 의견도 조화롭게 조율될 수 있는 것 같아요.

Q. 동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김관빈
매일 아침 회의시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업무 이야기를 하다보면 분위기가 무거워질 때도 있지만,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이심전심의 자세로 좋은 분위기를 갖기 위해 애씁니다.

현지만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입니다. 솔직한 게 오해를 낳을 염려도 없고, 내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 좋은 것 같더라고요.

Q. 나에게 리스텍비즈는 ()이다!

김관빈
'내꺼'입니다. 2010년 입사 이후부터 효율적인 생산, 생산량의 지속적 증대 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스텍비즈는 내 회사, 내가 사장'이라는 마인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숱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장진울
'생활'입니다. 리스텍비즈는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현지만
리스텍비즈는 저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동업자'입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함께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동업자가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할 수 있도록 제가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 Send

ÉĎŽĚĆDŽ NEWS

SIMPAC 프레스BU 2021.05.21

(주)SIMPAC, 포스코그룹 엔투비와 '좋은친구 프로그램' MOU 체결

수익금 일부를 공동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을 추진하는데 사용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포스코그룹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MRO) 전문기업 엔투비와 (주)SIMPAC이 자재 구매협약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주)SIMPAC은 엔투비와 지난 5월 21일 심택 홀딩스에서 자재 구매 대행 협약과 사회문제 해결을 결합한 '좋은친구 프로그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좋은친구 프로그램은 엔투비가 신규 고객사와의 구매대행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고객사와 공동으로 탄소저감, 지역사회 환경개선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는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롤모델이다. 엔투비는 MRO 업계 최저 마진율을 유지하면서 중소 기업들의 적정 납품단가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좋은친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탄소저감과 지역사회 환경개선 등 다양한 ESG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엔투비 관계자는 "국내 우수 철강관련 기업들과 구매대행 계약을 통해 철강전문 MRO 기업으로 성장하는 한편, 고객사의 구매물량 통합과 과학적 구매 기법 적용으로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강건한 철강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SG 활동이란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이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치 있게 구현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된다.

SIMPAC그룹 2021.07.28

SAP ERP 및 IM업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 개최

SAP의 지능형 기업 및 새 ERP제품인 SAP S/4HANA 소개



지난 2021년 7월 28일 (주)SIMPAC은 SAP Korea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SAP ERP 및 IM(Industrial Machinery) 업계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사례 리뷰를 주제로 부평 프레스테크노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는 (주)SIMPAC, SIMPAC홀딩스의 임원 및 팀장급 총 26명이 참석하였다. 이는 SIMPAC Group Digital Transformation 및 경쟁력 강화, 전사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SAP ERP 도입 검토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세미나 내용으로는 SAP의 산업기계 및 부품산업을 위한 지능형 기업(Intelligent Enterprise) 소개 및 *SAP S/4HANA 개요 등이 있었으며, SIMPAC 그룹은 2021년 하반기 SAP ERP 도입 시작과 2023년 전사 발표 및 배포를 목표로 두고 있다.

SAP ERP도입은 4차 산업 시대에 디지털 혁명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스마트 팩토리 및 공장 자동화 등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 SAP의 차세대 지능형 ERP, SAP S/4HANA란?

SAP S/4HANA는 최적화된 ERP 프로그램으로 전사적자원관리(ERP), 고객관계관리(CRM), 공급자관계관리(SRM), 공급망관리(SCM) 등 분리됐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통합한 제품이다. SAP S/4HANA는 디스크가 아닌 메인 메모리에 모든 데이터를 담아 검색과 접근속도를 100~1천 배 이상 빠르게 만든 데이터 플랫폼으로 기존 SAP Business Suite 시스템을 완벽하게 변환하여 효율적이고 단순화된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한다. 다양한 사용자들을 위한 디바이스를 지원하고 실시간 프로세스에 따른 다양한 데이터 처리 방식을 통해 비즈니스 전반에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임직원 간의 소통과 신뢰로 눈부시게 비상하다

SIMPAC 메탈BU 당진공장

고품질의 중저탄소 페로망간을 생산하는 당진공장은 올 초까지만 해도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 잔뜩 움츠리고 있었지만, 공장 내 임직원 모두가 더 높은 생산량과 고품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언젠가 날개를 펼칠 준비가 되어있던 당진공장은 올해 작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면서 눈부신 비상을 이뤄냈다.

최고의 실적 달성

작년 매출액 대비 두 배 상승, 영업 이익은 두 배 이상 상승이 예상되며, 이러한 깜짝 실적은 10년간 이어진 당진공장 임직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다.

고품질 합금철을 위한 청사진

2011년, 당진공장은 첫 삽을 뜨는 순간부터 고급강인 중저탄소 페로망간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왔다. 국내 최초의 합금철 제조사로서 다양한 합금철 제품을 생산해온 SIMPAC에서는 포항1공장, 포항2공장에서 일반적인 합금철 생산을 위주로 해왔다. 그리고 중저탄소 합금철 생산기지로 당진공장을 선택했다. 탄소 비율을 기존의 6.5%에서 0.5~2.0%로 줄인 중저탄소 페로망간은 일반 합금철에 가격도 높고, 영업 이익도 높지만, 기술력과 최신 설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중저탄소 페로망간을 생산해내는 공장은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서해안에 있는 대형 철강업체의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인천과 군산의 수요를 고려했으며, 나아가 서해안을 통한 수출도 감안해 당진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작년까지만 해도 당진공장은 불황기로 인하여 생산설비를 전부 활용하지 못할 정도로 생산량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생산량과 실적에서 반등하며 국제 합금철 시장에서의 입지를 단단히 다질 수 있었다. 한 달 5만 톤이던 생산량이 올해는 6만 5천 톤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8만 톤 생산을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당진공장이 현재 세계 3위의 중저탄소 합금철 공급처로 자리 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사이 당진공장은 끊임없이 비상을 꿈꾸고 있었다. 박승배 이사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올해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었지만, 모두 그동안 임직원 모두가 품질 향상,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좌로부터) SIMPAC 메탈BU 당진공장 공장장 박승배 이사, 전기로 손상호 반장, 전기로 김병찬 주임, 전기로 이기수 사원



고품질의 중저탄소 페로망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기로는 물론, 정련로가 필요하다. 당진공장에는 대형 전기로 2기와 대형 정련로 역시 2기가 도입되어 있으며, 이어 원료를 보관 장소로서 에어돔도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다. 이는 원료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게 하여 생산원가를 낮추는 역할도 하지만,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하여 주변 지역의 오염을 막아낸다.

에어돔 외에도 당진공장의 환경을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공장 내 먼지를 빨아들이는 대형 집진 설비가 3대 설치되어 있고, 2,500톤의 물을 저수할 수 있는 큰 저수지를 만들어 저수지의 물을 공장에 살수하고, 공장 안에서 쓰는 폐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한다.

임직원 간의 시너지효과로 만들어낸 깜짝 성과

고품질의 합금철을 위한 또 다른 필수요소는 바로 '직원'이다. 올해의 성장 덕분에 당진공장 내 직원 역기도 배로 늘어났다. 현재 정규직 인원만 해도 60여 명, 협력업체 직원 40여 명을 더해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앞으로 늘어날 주문량에 대비해 신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요보다 5% 추가로 인원을 충원해둔 상황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충원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의 고충은 적지 않았다.

"갑자기 생산량을 늘려야 하니 인원을 급히 확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납품기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저뿐만 아니라 관리직원들, 현장 직원들 역시 심했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스스로 협의해서 기존의 4조 3교대에서 3조 2교대로 바꿔 운영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전에 하루 8시간 하던 근무가 12시간으로 늘어나면서 근무 강도도 높아지고, 피로도 많이 누적되었을 겁니다. 지금도 정상화되지 못해서 직원들에게 많이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회사를 위해 애써주는 직원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처음 당진공장을 세웠을 때부터 직원들이 소통과 융합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직원들의 이런 마음가짐이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이 직원들이 당진공장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MC/LC FeMn

중저탄소 페로망간

- 탈산, 탈황제
- 자동차용 고급판재를 생산공정에 사용
- 망간성분 첨가
- 주요고객사 : 현대제철 등



박승배 이사장의 말처럼 당진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경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하나로 똘똘 뭉쳐있다.

“포항 공장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당진공장으로 온 분들도 있고, 이 주변에서 살고 있었던 분들도 있어 각양각색의 지역 분들이 모였지만, 우리 모두 최대 생산이라는 회사의 목표를 위해 한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출탕작업을 도맡고 있는 이기수 사원이 이렇게 말하자, 전기로 D조를 총괄하는 김병찬 주임 역시도 이에 동감한다.

“저 역시도 포항에서 온 지 올해로 10년 차인데, 지금까지 지역이나 직책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과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원분들은 현장지원 등에 있어 현장을 믿고 맡겨주시고, 현장에서도 직원 모두 회사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열정적으로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호 간에 신뢰를 잘 쌓은 덕분에 어떤 일도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과거보다 지금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

이러한 열정은 당진공장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C조에서 정련조업을 담당하는 손상호 반장은 평소 현장에서도 멀티플레이어를 키우며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는 점을 당진공장의 성공 비결로 꼽는다.

“현장 직원들은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주조장이 하는 업무를 배우곤 하는데요. 직책이나 자리가 정해져 있지만, 모든 사람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보직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교육이 미래를 위한 투자나 마찬가지죠.”

직원이나 반장, 주임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배워가기 때문에 10년 후 우리는 더 잘하고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어려워서 고민했던 부분과 이를 풀어냈던 노하우를 모든

생산



직원이나 반장, 주임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배워가기 때문에 10년 후 우리는 더 잘하고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어려워서 고민했던 부분과 이를 풀어냈던 노하우를 모든 직원이 습득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지금 모자란 점을 채우면 우리 뒤에 올 이 친구들이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메탈BU 당진공장 공장장 박승배 이사



(좌로부터) 전기로 김병찬 주임, 공장장 박승배 이사, 전기로 손상호 반장, 전기로 이기수 사원

생산 효율성을 위한 고민

당진공장에서는 설비와 물류, 협력업체까지 TF를 만들어 용척량을 17%에서 8%로, 파쇄분 역시도 18%에서 10%로 줄이며 생산 효율성을 대폭 높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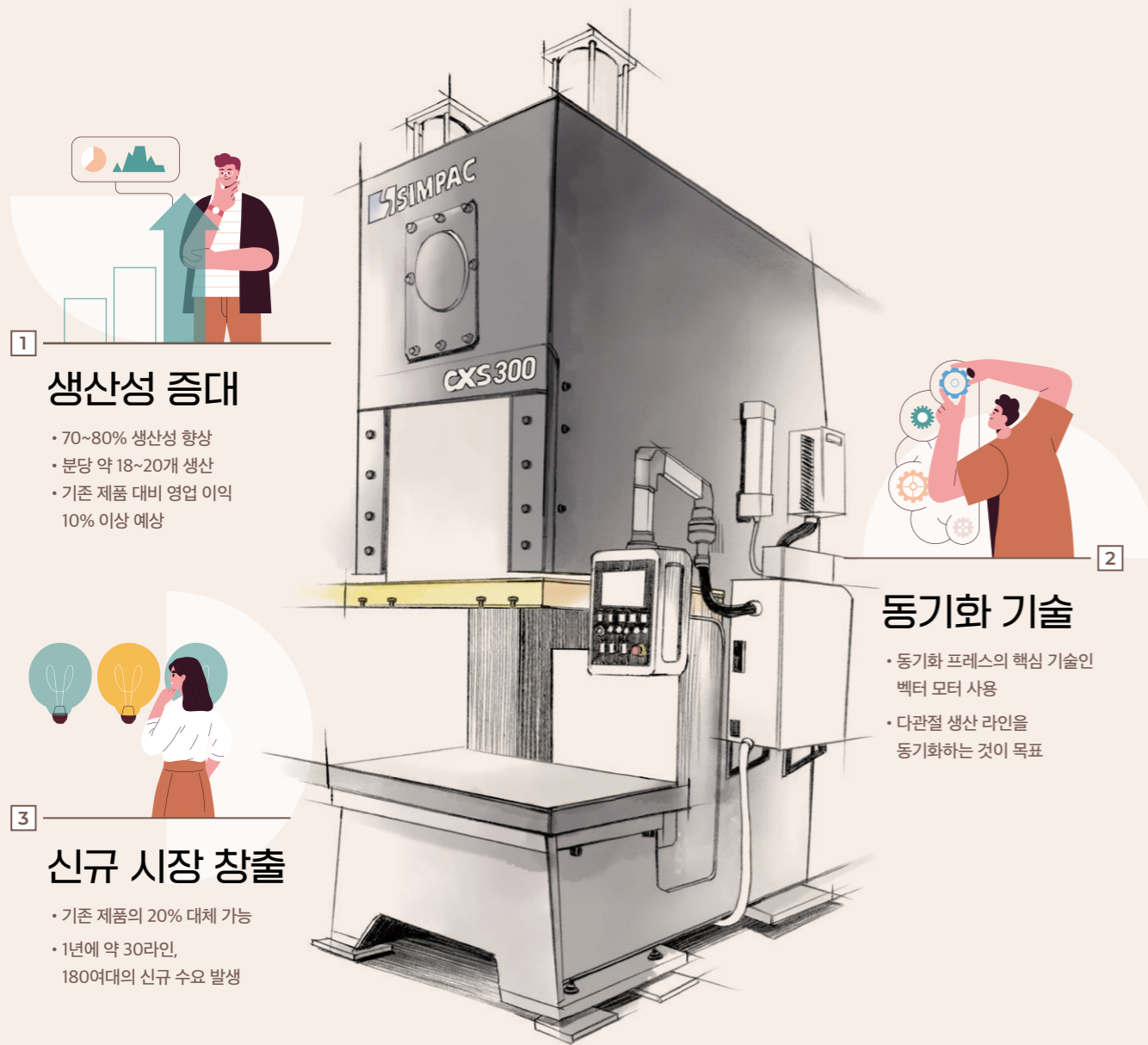
직원이 습득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지금 모자란 점을 채우면 우리 뒤에 올 이 친구들이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올해 당진공장은 최고 매출과 최고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은 작년보다 두 배, 영업 이익은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나아가 내년 역시 올해의 시장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당진공장은 올해보다 더 많은 매출과 영업 이익을 목표로 삼고 내년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에 박승배 이사의 호언장담은 당진공장의 미래에 대해 더욱 기대를 모은다.

“판매량, 생산량으로 보면 세계 3위 업체지만, 경쟁력에 있어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1위로 도약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개발한 동기화 프레스의 저력

SIMPAC이 개발한 동기화 프레스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생산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기술은 이미 2012년에 완성됐었다. 하지만 최고의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 때문에 판매까지는 연결되지 못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다. 마침내 SIMPAC의 기술력은 업그레이드하고 가격은 낮은 동기화 프레스 개발에 성공했다. 영업팀 박철우 부장을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 생산성 증대

- 70~80% 생산성 향상
- 분당 약 18~20개 생산
- 기존 제품 대비 영업 이익 10% 이상 예상

3 신규 시장 창출

- 기존 제품의 20% 대체 가능
- 1년에 약 30라인, 180여대의 신규 수요 발생

2 동기화 기술

- 동기화 프레스의 핵심 기술인 벡터 모터 사용
- 다관절 생산 라인을 동기화하는 것이 목표



SIMPAC 프레스BU 국내영업팀 박철우 부장

동기화 PRESS 설비사양

- 라인 구성 : CXS-300 x 1 / CXS-250 x 5
- 스트로크 : 330~350mm
- S.P.M : 벡터모터(16~23)
- 라인스피드 : 18~20/min (연속 조건 사용)
- 자동화 : 단독 ROBOT
- 전기제어 : PLC (미쓰비시)+터치
- 클러치 : 내장형 습식 C/B
- 급유방식 : 세미 순차분배변
- 기브 : WIDE 6면 기브

연속 작업으로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동기화 프레스'

동기화 프레스란 각각의 프레스가 자기 위치를 '동기화'하여 연속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레스 신기술을 말한다. 일반 프레스의 경우 로봇 등의 자동화 기기가 제품을 운반하는 동안 적정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회전 후 움직임을 잠시 멈추는데, 이를 '간섭곡선'이라고 부른다. 동기화 프레스는 이러한 간섭곡선을 없앴다. 프레스의 연속 작업은 프레스 부하를 최소화하여 수명을 늘릴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독일, 일본 등 해외 선진 기업에서는 10년 전부터 서보 동기화 프레스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SIMPAC도 2012년 국내 전시회에서 첫 개발품을 선보인 바 있다. 3년 전에는 1호 서보 동기화 라인을 미국 현지 업체에 납품하기도 했다.

하지만 SIMPAC은 서보 동기화 프레스 개발 후 난항을 맞았다. 확실히 좋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철우 부장은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소위 내로라하는 기업들을 찾아가 꾸준히 영업을 시도했지만 그 어떤 기업도 서보 동기화 프레스에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기술력은 있었지만 상품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였다.

"가성비 때문이었습니다. 서보 동기화 프레스를 사용하면 생산성이 70~80% 향상되지만 제품 가격이 기존 프레스에 비해 3배 정도 높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인 서보 모터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소형 프레스의 경우 서보 모터 금액이 전체 설비 금액의 60~7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보 모터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방법을 찾다가 동기화 프레스에 필요한 핵심 기술 한두 가지를 적용한 벡터 모터를 사용하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동기화 프레스의 핵심 기술은 동기화 기술에 있지 서보 모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SIMPAC R&D본부의 기술력과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품을 사용할 고객을 먼저 찾아라!

기술적 방안은 마련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다. 제품을 구입할 고객이 없다면 개발을 위한 개발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박철우 부장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을 먼저 찾기로 했다.

“회사의 규모와 친밀도를 떠나 어떤 제품이 동기화 라인에 가장 적합한 지부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용 가능한 제품을 타겟팅 하고 그에 맞는 기술자료를 제작해 1:1로 제안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구영테크와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R&D본부에서 야근과 주말 특근을 수없이 하면서 처음 목표했던 것보다 120% 이상의 성능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설계팀은 해외 선진 기업이 한번도 해보지 못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고 상품화까지 성공했습니다. 구영테크는 저희 제품에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벡터 동기화 프레스는 기존 제품 대비 영업이익을 10% 이상 높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SIMPAC이 개발한 생산 라인은 단동 로봇이라는 자동화 장비를 이용하는데 기존 제품의 20% 정도 대체 가능하고 분당 약 18~20개를 생산할 수 있다. 박철우 부장의 목표는 다관절 로봇 생산 라인을 동기화하는 것이다.

“다관절 로봇이라는 자동화 장비를 이용한 생산 라인은 국내외에서 우리나라 기업만 약 250라인, 1,500여 대를 사용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비 노후화에 따른 라인 증설 등에 따라 1년에 약 30라인, 180여 대의 신규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글로벌 수요를 생각한다면 엄청난 시장입니다. 이러한 다관절 생산라인 공략을 위해 현재 국내외 다관절 로봇 글로벌 메이커 세 곳과 접촉 중입니다.”

박철우 부장은 “다관절 로봇으로 동기화 라인 기술을 구성할 수 있다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덧붙었다. 해외 시장의 경우에도 저가 정책이나 틈새 시장 공략이 아닌 기술력으로 수출할 수 있는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미다.



동기화 PRESS란?

- 프레스 가동시 자동화 및 LOADING & UNLOADING이 동기화되어 동작되는 방식을 말한다.

동기화 종류

- T/D형: 좌우 배열방식 (주로 소형에 사용), 전후 배열방식 (주로 대형에 사용)
- T/F형: Feed Bar Type Modular형

Mechanical

“시너지로 이룬 성과, 모두의 노력이 성공이라는 결실로!”

SIMPAC이 생산하는 제품은 어느 특정 부서만의 노력으로 생산할 수 없다. 동기화 프레스도 마찬가지다. 박철우 부장은 “R&D본부는 물론이고 구매, 생산, 영업 등 모든 팀이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만든 결과물이지 그 가치가 더욱 값지다”라고 설명했다.

SIMPAC은 현재 동기화 프레스의 제조 원가를 더욱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제품 생산에 필요한 해외의 고가 제품 대신 범용 부품으로 같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만 찾는다면 영업이익을 추가로 15% 이상 얻을 수 있을 거라 전망하고 있다. 동기화 프레스의 확장도 기대해볼 만하다.

“현재는 동기화 프레스 판매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소형 프레스에 국한돼 있지만, 향후 중대형으로 적용해나간다면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 VD사업부와 기술미팅을 완료했고 그 가치를 인정 받아 가전·무선 사업부 인원이 다 모여 공청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진입해야 하는 시장이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SIMPAC은 동기화 프레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의 부품을 생산하는 고정밀 너클 프레스의 경우 시제품 두 대를 고객사에 납품한 상태다. 고정밀 너클 프레스는 향후 3~5년 안에 약 200대의 수요를 예상하고 있다.

“우리 모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동기화 프레스 개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다함께 노력한다면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부서의 이해관계를 따지기 전에 회사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노력해주신 많은 동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동기화 프레스는 전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보여준 SIMPAC의 저력이다. 동기화 프레스가 갖춘 기술력은 SIMPAC의 미래다. 동기화 프레스가 만들어갈 더 멋진 내일을 기약해본다.

미 니 인 터 뷰



구영테크
배효상 전무

“믿음과 신뢰로 선택한 동기화 프레스, 생산성 향상에 매우 만족합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라 솔직히 걱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SIMPAC과는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하고 믿음과 신뢰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구영테크에는 동기화 프레스 세 개 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설비 대비 생산성이 30~40% 높아졌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향후 생산 라인을 보다 확대해 생산성을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동기화 프레스를 통해 SIMPAC의 기술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IMPAC PRESS BU

(좌로부터)
전기설계팀 신병민 매니저,
기계설계팀 최준호 매니저,
개발팀 김준태 매니저

보다 새롭고, 보다 완벽하게!

시너지로 완성하는 경쟁우위의 비결

항상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하나가 돼야 한다. SIMPAC 프레스BU R&D본부에서 근무하는 신병민·김준태·최준호 매니저의 생각이다. 최고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오늘보다 내일을 더 빛내기 위해 하나가 되는 세 사람의 시너지가 SIMPAC의 미래를 활기차게 열어가고 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세 개 팀

어떠한 일이든 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가 될 때, 서로 격려하고 상호 소통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Q. SIMPAC 프레스BU R&D본부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이며, 각자 맡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최준호 매니저 R&D본부는 설계 업무를 하는 조직으로, 업무의 종류에 따라 전기설계팀, 개발팀, 기계설계팀으로 나뉩니다. 기계설계팀은 구조 설계를 맡고 있으며, 저는 그 중에서도 프레스 수주분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준태 매니저 R&D본부는 고객이 원하는 사양의 적합성 검토, 기술 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 제품 개선 활동, 수주 기종 및 개발 기종 설계 등의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팀은 신기종을 만들거나 기계의 구조 개선을 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저는 도면 설계와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병민 매니저 전기설계팀은 기계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장 배치하고 프로그램으로 구동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전장 설계와 프로그래밍이며, 서버와 유압 개발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세 팀의 업무 연관성이 높을 듯합니다. 현재 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거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낸 프로젝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준태 매니저 윤활 유닛 자체 개발 TFT에서 활동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윤활 유닛 자체 개발 TFT는 외주 제품을 사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유압 분야는 기계설계팀과 협업을 했고, 센서의 작동 조건은 전기설계팀과 협업을 하며 진행했습니다. 윤활 유닛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협업이었습니다.

최준호 매니저 기계설계팀에서 제작한 구조 개선안을 갖고 개발팀에서 기계 프레스의 구조 개선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종 기계들의 구조 개선과 소재 절감을 이뤄냈고, 그 결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신병민 매니저 저희가 진행하는 일 거의 대부분이 협업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설계팀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개발팀과 기계설계팀의 업무가 시작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고 조율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시너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 Transfer Press DTE4-2600



열심히를 넘어 '즐겁고 보람되게' 일하기

설계 도면이 제품으로
가시화되었을 때의 기쁨과 보람은
일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SIMPAC PRESS BU
프레스BU 전기설계팀
신병민 매니저

Q.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나만의 업무 철칙', '나만의 업무 노하우'가 있다면 공개해주세요.

신병민 매니저 현장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신입사원 시절에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전장 배치하거나 프로그래밍한 기계는 현장에서 직접 시운전을 하면서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 일은 내가 다하자'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분명히 남도 하기 싫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모든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최준호 매니저 '스테디 퍼포먼스(Steady Performance)'라고 해서 꾸준한 결과물을 내려고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가 맡은 업무에서 실수나 누락 등을 최소화하면서 완벽하게 해내야 하는데요. 때문에 저는 정해놓은 하루의 수면 시간을 지키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등 자기관리에 신경을 씁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최상의 상태가 돼야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김준태 매니저 업무와 업무 사이에 간극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의 작업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한번 빠르게 마무리하고 잠깐 다른 일을 했다가 다시 마무리한 일을 살펴보는 식으로 업무와 업무 사이에 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같은 일이라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Q. R&D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보람과 고충에 대해 들어보고 싶어요.

최준호 매니저 평면에 그린 그림이 제 눈앞에서 기계가 되어 서 있을 때, 그 기계가 구동이 잘되는 걸 볼 때 기쁨이 큰 것 같습니다. 또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개선사항이 잘 반영됐다'고 말씀하시면서 만족스럽게 업무를 하실 때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사원 시절에는 내가 한 실수가 다른 팀과 회사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는지를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차가 쌓이고 많은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 스트레스는 책임감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병민 매니저 일을 한 지 5년 차가 되었는데 설계적으로나 프로그램적으로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좀 더 잘하면 일이 수월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들과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했거나 성과를 냈을 때 동료애도 느끼고 보람도 느낍니다.

김준태 매니저 DA-600 ULUS METAL이라는 첫 프로젝트를 했을 때, 완성된 프레스를 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인증이 필요한 프로젝트였기에 인증에 대한 숙지가 수반되어야 했고 기계 옵션도 많이 요구되어 자동화 및 전기팀과의 협업도 필요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프레스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스 BU와 SIMPAC의 성장을 견인하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더 발전하는
프레스BU와 SIMPAC의 내일을 위해
더욱 가열차게 뛰겠습니다!



SIMPAC PRESS BU
프레스BU 개발팀
김준태 매니저

Q.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목표가 있다면요?

최준호 매니저 아무래도 코로나19 시국이다 보니 올해는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생활과 업무가 엉망이 되니까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서 평범한 생활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목표는 함께 일하는 유관부서와 동료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할 생각입니다.

김준태 매니저 개인적인 목표는 출퇴근 시 '대중교통 안타기'입니다. 업무 할 때 중요한 요소가 바로 체력인데요. 자리에 오래 앉아 일을 하다 보니 체력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출퇴근 중 편도 약 2km 정도는 걸어 다니며 일상 속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4km 정도로 길이를 더 늘여보려고 합니다. 중장기적 목표는 어학 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업무 중 해외 자료를 찾거나 해외 제품의 카탈로그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해외 고객과의 미팅에서도 어학 능력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지금보다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신병민 매니저 올해 서보 프레스 업무를 시작했어요. 단기적으로는 모션 프로그램에 대해 60% 이상 이해하는 겁니다. 재작년에 시작한 유압 프레스와 서보 프레스 업무 모두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고요. 또 다른 바람은 동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안 해본 일, 모르는 일이 많아 한계가 있지만, 제가 신입사원 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앞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SIMPAC PRESS BU

프레스BU 기계설계팀
최준호 매니저





Q. 협업으로 업무를 진행하며 시너지를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산하는 요소는?

최준호 매니저 일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므로 서로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달라 크고 작은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고, 똑 같은 말도 상대방에 따라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와 경청하는 자세가 소통을 이루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태 매니저 '별일 아니겠지' 하고 지나간 일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의 일에 관심을 갖는다면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오래 고민하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고,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인데 별 것 아닐 거라고 지나칠 뻔한 일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신병민 매니저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 프로젝트를 잘 완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책임감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듯합니다.



△ Servo Press - Series 150~3000(ton)

▽ Mechanical Press 80~3000(ton)



MINI INTERVIEW

나에게 R&D는 ()이다

FUN

재미이자
즐거움

프레스BU R&D본부 전기설계팀
신병민 매니저

저에게 R&D는 '재미이자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전기를 전공했는데, 졸업하고 심팩에 입사하기 전에는 생산팀에서 근무를 했어요. 심팩에서 전기 관련 프로그래밍 업무를 처음 한 거죠. '이 일이 정말 재미있구나'라고 처음 느꼈고 제게 일하는 재미와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고향

프레스BU R&D본부 기계설계팀
최준호 매니저

사회생활을 R&D 분야로 시작했으니 저에게 R&D는 '고향' 같은 존재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 R&D 분야를 떠날 것 같지 않습니다.



메이커

프레스BU R&D본부 개발팀
김준태 매니저

R&D는 '물음표'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질문이 떠오르고 또 질문을 던져야 하는 직종이거든요. 질문을 던지다 보면 기존에 모르고 넘어갔던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나 자신과 심팩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물음표를 갖고 업무에 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故郷

잘나가는 사람들의 일 잘하는 비결

슬기로운 직장생활

주변을 둘러보면 유독 일 잘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원활하게 협업합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매우 능숙하죠. 어떻게 해야 잘나가는 사람들처럼 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Patterning

일이 쉬워지는 마법, '패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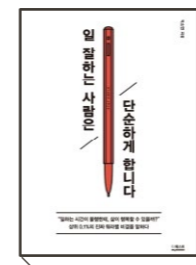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수월하게 출근을 준비합니다. 씻기, 아침식사, 옷 입기, 교통수단 이용 등 기상 직후부터 오전 일과 직전까지 해야 할 일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도 마찬가지로 일상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일의 패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때그때 대처해야 하는 세세한 부분들조차 큰 틀에서 보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부서 내 업무, 부서 외 사람들과의 협업 업무, 기간이 짧은 단발성 업무, 긴 호흡으로 진행해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 등 우리의 일을 몇 가지 패턴으로 구분하고 업무 순서를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일에 몰입할 수 있죠. 즉, 일 잘하는 프로세스와 습관이 몸에 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일 잘하는 사람들은 패턴화를 통해 남들보다 쉽고 빠르게 일합니다.

업무를 효과적으로 패턴화하는 방법

- ① 업무 패턴을 만들기 전에 꼭 지켜야 할 대원칙부터 세우세요.
- ② 작고 일상적인 업무부터 차근차근 패턴을 만드세요.
- ③ 업무 중 골라야 하는 선택지와 고민하는 횟수를 줄이세요.
- ④ 대단한 무언가를 해내려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BOOK 추천 도서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
박소연 지음, 더퀘스트
복잡해 보이는 일을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론



일을 잘한다는 것
아마구치 슈, 구스노키 겐지음,
리더스북
어떤 업무를 하든
반드시 해내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일의 공식



Collaboration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라

오늘날과 같은 융합의 시대에서 사람들과의 협업은 가장 중요한 업무 덕목입니다. 그 긴밀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이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하는데요. 그런데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한 소통과 교류는 협업을 위한 방법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잡무 때문에 정작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빠르고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더욱 효과적인 협업 툴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합니다. 아울러 나와 상대방이 모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소통 방법을 사내 문화의 수준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 목적이 아닌 수단임을 구성원 모두에게 납득시키려는 노력입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깨닫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함께 일하는 모두가 일 잘하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명료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법

- 1 구성원들과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 2 소통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효율적인 소통수단을 찾고 적용하세요.
- 3 늘어지는 말을 짧고 명확하게 정리해 전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4 모든 업무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공유하세요.



BOOK 추천 도서



하이브 마인드
 칼 뉴포트 지음, 세종서적
 비효율적인 소통체계를 벗어나야 하는 이유에 대한 명쾌한 설명



회사의 언어
 김남인 지음, 어크로스
 협업에 능한 업무 에이스들은 어떤 언어 습관을 갖고 있을까?



EFFICIENCY

Goal

목표가 사람을 움직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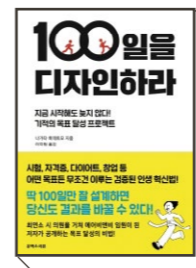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을 가기 전 어딜 갈지, 무엇을 할지 계획부터 세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낯선 곳을 헤매게 될 테니까요. 업무도 마찬가지, 목표를 뚜렷하게 잡을수록 효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목표를 가슴속에 품고 있기 보다 실제로 말하거나 가까운 곳에 써 놓으면 그 실체가 한층 명확해집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점은, 목표를 크게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관행을 넘어 새로운 방법과 해결책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생존법인 혁신으로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원대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스스로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유명한 경영자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는 행동하기에 앞서 자율주행 전기차, 화성 이주 프로젝트, 인공지능 로봇 등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당시에는 비웃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의 꿈을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목표가 사람을 완성한 셈입니다.

흐릿한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방법

- 1 내가 담당 분야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와 일생의 비전을 기록하세요.
- 2 삶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간 목표를 세우세요.
- 3 매일 아침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 투두리스트(To-do list)를 만드세요.
- 4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목표 사이의 상관관계를 지속적으로 되뇌세요.



BOOK 추천 도서



100일을 디자인하라
 나가타 히데토모 지음, 유엑스리뷰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00일 디자인 시스템



OKR & GROWTH
 OKR로 빠르게 성장하기
 이길상 지음, 세종서적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수 있는 OKR 실행법



WORK



LET'S WORK TOGETHER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힘, 협업(Collaboration)

우리는 협업이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협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전제 조건은 각자가 자신의 분야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서로 협력하며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협업이 가장 잘 구성된 조직은

리더십이 있고 업무가 세분화되어 중복업무가 없으며

다양하게 업무를 하면서 소통한다.



01

화합과 협력이 중요한 시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GOOD TO GREAT)” 이란 책에서 위대한 기업의 공통점은 다양성이었으며 조직 내 협업이 어려워지면 기업의 존속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로 소통의 문제, 리더와 팔로워, 부서 간 자유로운 협업이 일어나지 못하는 기업은 10년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협업이라는 조직문화가 왜 기업의 존속뿐 아니라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주요 동력일까?

지식과 기술이 급격히 빠른 시대인만큼 개인의 능력만으로 시대가 원하는 성과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의 능력보다 우리의 스마트함을 보여줄 수 있는 협업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역량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협업력을 갖춰야 한다. 그렇다면 SIMPAC인들은 협업에 대해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을까? 이번 설문 중,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에서 40%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나는 조직의 요구에 대응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에서 53%가 협업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02

다양성을 통해 함께하는 법을 배우다



협업은 서로 다른 아이디어와 관점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다양성 안에서 창의성을 기르는 것이다. 서로 간의 업무를 이해함으로 역량을 강화시키고, 협업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주인의식이 나올 수 있다.

조직 내 다양성과 협업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보의 가치를 향상시킨다. 각자 서로 아이디어를 통해 시너지가 발휘할 때 비로소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SIMPAC인들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조직은 원활한 원가절감과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에서 ‘그렇다’가 55%, ‘서로 간의 협력은 조직과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에서 ‘그렇다’가 45%였다. SIMPAC에서 조직에서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03

환상의 팀워크로 시너지를 창출하다



협업을 추구하는 사람은 유연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 스티브 잡스는 ‘창조는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는 능력이다.’ 라고 말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협업을 통해 개인과 조직을 성장하게 하며 다름을 경계하지 않고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혼자만의 지혜와 능력만으로 급변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헤쳐 나가기 어렵다. 이럴수록 요구되는 팀워크는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SIMPAC인들 모두가 각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서로 협업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 환상의 팀워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SIMPAC Now. SIMPAC人' Think

SIMPAC人들은 SIMPAC의 협력과 시너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지난 9월 24일부터 14일간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진행 : 사내 인트라넷을 통한 설문진행

기간 : 2021.09.24~2021.10.07

참여 : SIMPAC홀딩스, SIMPAC, SIMPAC인더스트리, 리스텍비즈 등
SIMPAC그룹 전 계열사 참여 (총 89명 설문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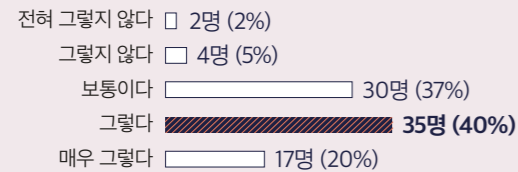


귀하가 생각하는 화합과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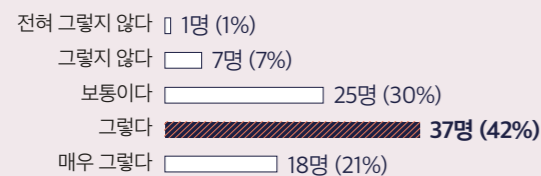
01

우리 조직은 전반적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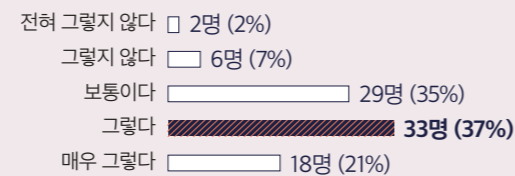
02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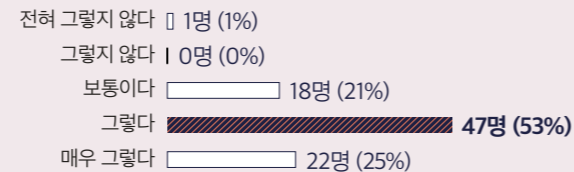
03

우리 조직은 부서간의
협력을 중요시하며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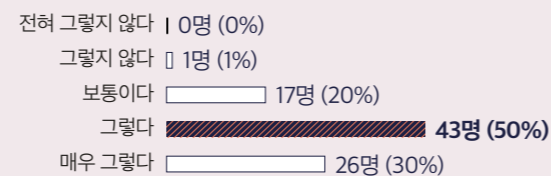
04

나는 조직의 요구에
대응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



05

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누구보다
앞서가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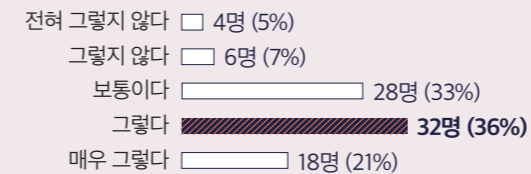


귀하가 생각하는 협력을 통한 시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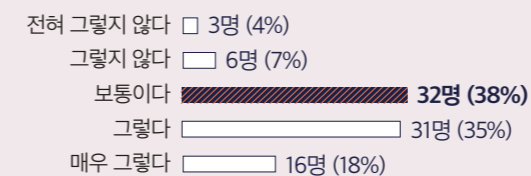
06

우리 조직은 원활한 협력을 통하여
제품의 혁신적인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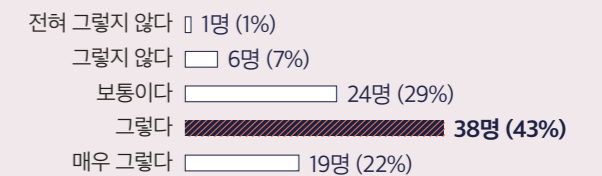
07

우리 조직은 원활한 협력을 통하여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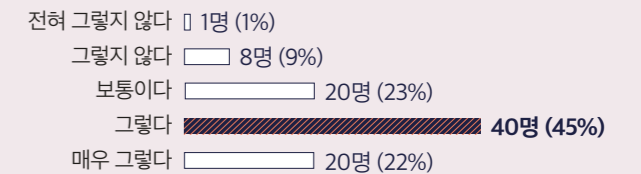
08

우리 조직의 협력은 원가절감과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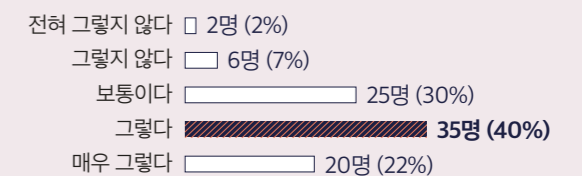
09

서로 간의 협력은 조직과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



10

우리의 협력은 경영혁신에
도움이 되고 있다.



SIMPAC Now. SIMPAC人' Think

II 화합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에 대한 심팩인들의 의견

심팩의 가치있는 미래를 위한
공통의 목표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한 발 물러서서 과거와 현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넓게 비추어 보는 통찰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업무에 있어
주인의식을 가지고 소통하면,
보다 바람직한 조직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역량 및 성과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조직은 협력을 통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의 판단 기준도
개인의 성과뿐 아니라
부서간, 조직간 협력의 기여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신뢰감 형성이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분기별로 각 직급간
제안의 날을 만들어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을 통한
계층 간의 다양한
의견 공유로 혁신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합과 협력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들은 후배를 존중하고,
후배들은 선배를 존경하는
문화가 뿌리내렸으면 합니다.

본인부터 개선해야 하지만,
조직원 개개인의 장단점을
유기적으로 확인하고
소통의 문화를
확대해야 합니다.

SIMPAC

SIMPAC

4

동반자 스타그램

이 코너는 임직원들의 투고를 받아 인스타그램 형식으로 재구성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와 사진은 각 사 사보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SIMPAC인 여러분의 생활 속 장면과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번 호는 '동반자'를 주제로 심팩인들의 일상을 함께합니다.

STARGRAM

SIMPAC 프레스BU 해외영업팀
윤수정 매니저

지친 하루에 시너지가 되어주는 애교쟁이 율토리!

#강아지 #시너지 #귀여워

SIMPAC 프레스BU 재무회계1팀
나우정 매니저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것. 그건 바로 아이! 아이야 말로 삶의 활력소이자 생명수! 오늘도 고마웠고, 내일도 잘 부탁한다.

#필수템 #시원해



SIMPAC 프레스BU 경영지원팀
김효리 매니저

우리집 막내 똘, 똘만 보면 힘이나요!

#귀여워 #강아지 #푸들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 경영지원팀
최한나 사원

고된 일상에 행복을 주는 나의 동반자 뉘시.

#뉘린이 #가물치 #강화 #뉘시 #주말취미

우리들이야기 Congratulations!

결혼을 축하합니다

SIMPAC 프레스BU 생산팀 김광현 매니저



2021.5.16

서로가 마주보며 다져온 사랑을 이제 한 곳을 바라보고
걸어가며 큰 사랑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지켜 나갈 수 있게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IMPAC 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 생산팀 강동민 사원



2021.10.3

하루하루가 예쁜 노래처럼
행복하고 즐겁게 살겠습니다.

탄생을 축하합니다

SIMPAC 프레스BU 해외영업팀 박경현 매니저



2021.8.9

사랑하는 딸 하연아! 우리에게
찾아와줘서 고마워! 언제나 건강하고
밝은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아껴주고
사랑할게요.



하나된 변화, 새로운 도약

È3GGĤĠÄĈĈÄË ÖĬ ĬÄĈ3HÄ
ĎHĬ 3ĬGÄJÄĤ HĠÄ

SIMPAC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레스 제작, 합금철 개발 및 생산, 철강 유통 및 가공 사업을 주도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의 SIMPAC을 있게 한 원천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이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먼저 도전하고 그 도전을 이루어 내는 First Mover의 모습을 앞으로도 이어가고자 합니다.

SIMPAC Group

<p>SIMPAC 홀딩스 SIMPAC그룹 지주회사 ·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 · 철강 가공 및 유통</p>	<p>SIMPAC 프레스BU 국내 No.1 프레스 메이커 · 기계식, 유압식, 서보프레스 생산</p>	<p>SIMPAC 메탈BU 국내 Top-tier 합금철 메이커 · 페로망간 및 실리콘망간 합금철 생산 · Roll 가공 및 제조</p>
<p>SIMPAC 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 글로벌 기계 메이커들의 든든한 파트너 · 산업기계 및 감속기 생산</p>	<p>SIMPAC 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글로벌 합금철 시장의 새로운 리더 · 고순도 페로실리콘 생산</p>	<p>리스테크비즈 세계 최고수준의 리사이클링 기업 · 고순도 산화아연 생산</p>